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사도 바울의 본

성경: 행 20:17-20, 28, 31, 26:16-19, 고후 11:28-29, 12:15, 살전 2:1-12

- I.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사람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하는 것의 본이었다 — 히 13:20, 요 10:11, 14-15, 뱀전 2:25, 5:4, 행 20:17-20, 28, 31, 26:16-19, 고후 11:28-29, 12:15, 엡 4:11-12, 15-16.
- II. 사도들은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본이었다 —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 살전 1:5하.
 - A.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도 그러하다 — 요 5:19, 6:57, 빌 1:19-26, 행 20:18-35, 마 7:17-18, 12:33-37.
 - B. 우리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요 12:24, 고후 4:12.
- III.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살고 공급하는 본이 되었다 — 딤후 1:16, 4:12, 롬 8:16.
 - A.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울이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일들에 대하여 바울을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 행 26:16-19, 비교 1:8, 23:11, 20:20, 31.
 - B.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 즉 자신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비결로 취했다 — 빌 1:19-21 상, 2:5-16, 3:7-14, 4:11-13.
 - C. 바울은 자신의 영 안에서 살고 봉사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영에 의해 살고, 그 영에 의해 행하며,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그 영을 공급했다 — 갈 5:16, 25, 6:8, 고후 3:6, 고전 2:15, 고후 2:13, 롬 1:9, 8:16.
 - D. 바울은 하나님을 주입받아,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과 화목의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어 내었다 — 고후 3:18, 4:1, 3:6, 8-9, 5:18-20.
 - E. 바울은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했다 — 롬 12:4-5, 고전 12:12-27, 엡 4:1-6, 15-16, 골 2:19.
- IV.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곧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생활로 그의 영적 자녀들을 먹였다 — 살전 2:1-12, 고후 1:23-2:14, 11:28-29, 고전 9:22, 행 20:28.
 - A.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였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았다.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활로, 곧 성령과 믿음의 확신 안에 있는 생활로 복음을 전했다 — 살전 1:5.

- B.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을 본받는 이들이 되었다. 이것은 그들을 이끌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그들의 본으로 취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들은 다른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 — 살전 1:6-7.
- C.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롭게 회심한 이들 안에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살전 1:5, 9, 2:1.
1. 사도들은 분투하며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였다 — 살전 2:2.
 2. 사도들은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이 없었다 — 살전 2:3.
 3.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말한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셨다 — 살전 2:4, 시 26:2, 139:23-24, 고후 1:12, 6:6, 7:3.
 4. 사도들은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었다 — 살전 2:5.
 - a.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러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것이다 — 고후 2:17, 4:2.
 - b. 이것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경건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다 — 딤후 6:5, 딤후 1:11, 벧후 2:3.
 5.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 살전 2:6상.
 - a.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실질적인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의해 삼켜지고 망쳐졌다 — 비교 삼상 15:12.
 - b. 무시되는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 곧 사탄이 되었다. 누구든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탄의 추종자이다 — 겔 28:13-17, 사 14:12-15, 마 4:8-10.
 - c.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 비교 요 7:17-18, 5:39-44, 12:43, 고후 4:5.
 6.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 살전 2:6하.
 - a. 그리스도인의 일에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일을 손상시킨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존엄을 버리셨고(요 13:4-5),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고전 9:12).
 - b.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죽일 것이다 — 마 20:20-28.
 7. 사도들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하는 것같이 믿는 이들을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했다 — 살전 2:7-8, 비교 갈 4:19, 사 49:14-15, 66:12-13.
 - a.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유쾌한 사람이라는 것, 곧 어떤 일에서나 어떤 방식으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 b. 우리의 타고난 인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활의 실재인 주님의 임재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사람들을 보살피야 한다.

- c. 보살피는 것은 보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람들을 보양하는 것은 세 단계로 된 충분한 사역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 — 엡 5:29.
- 8.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었다 — 살전 2:8.
 - a.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살전 2:3-6, 10)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7-9, 11절)은, 복음을 사람들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 b.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 곧 자신의 존재까지도 기꺼이 소비하고자 했다 — 고후 12:15.
- 9. 사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여겨,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곧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함을 갖도록 권유하였다 — 살전 2:11-12.
 - a. 믿는 이들은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살전 1:9)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다(마 12:26).
 - b.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부름받고 믿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사도들의 들어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은 “형제님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살전 1:5, 9). 이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새롭게 회심한 이들 안에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복음을 주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도들이 말한 것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였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갔다. 사도들이 들어간 것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가에 대한 분이였다.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통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되어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주로 전파와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간 그 방식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

심한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말함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심한 반대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한 싸움 안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담대함으로 누렸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례한 대우를 당한 뒤에도 담대했다. 고난과 박해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2절에 의하면 그들은 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 이것은 그들이 전파하는 동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싸우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정직하고 신실함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속임수는 의도를, 더러움은 동기를, 간교함은 수단을 가리킨다. 셋 모두가 간교하게 속이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마귀에 의한 것이다. 권유라는 말은 말함과 전파와 가르침과 교훈과 권면을 포함한다. 바울의 권유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간교함이 없었다. 사도들은 탐욕이 없었으며 누구에게서도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들이 복음을 갖고 데살로니가에 온 것은 전적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음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분께 인정을 받는 것에 근거한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시험받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것, 곧 그들의 복음 전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검사하시고 시험하셨다(시 26:2, 139:23-24).

4절에 있는 ‘인정받음’이라는 말은 시험받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인정하시기 전에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 인정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다. 하나님은 주의 깊은 방식으로 이것을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견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실 필요가 없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의 시험은 주로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매우 옳고 정직하며 신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대에 오를 때 우리는 참된 우리의 어떠함을 보게 되며 우리 자신 안에는 정직하거나 신실하거나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를 입증해 보인다. 오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증하신 후에야 우리는 인정받게 될 것이다.

내가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 대해 확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시험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분의 시험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시험을 통해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위임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위임은 우리가 인정받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야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야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위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신 것은 이러한 방식이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했다. 그들의 말함은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했다.

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인정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위임하신다는 것을 본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과 인정받음과 위임받음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무언가를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침하는 말이나 가식이 없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번도 아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탈’로 번역된 헬라어는 가면, 덧개를 의미한다. 탐욕의 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려 다니거나 말씀에 불순물을 섞는 것이다(고후 2:17, 4:2). 이것은 또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경건을 가장하는 것이다(딤후 6:5, 딤후 1:11, 벧후 2:3).

5절에 의하면 사도들에게는 아침하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모두 아침을 피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결코 아침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한 사도들이 탐욕을 위해 가면이나 덧개를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도 악한 동기가 없었다. 그들은 어떤 덧개나 가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팔려 다니거나 그것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혼잡하게 하는 것은 그것보다 못한 물질과 뒤섞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에다 동을 섞거나 술에다 물을 섞은 다음 그것을 순수한 것처럼 파는 것이다. 수 세기에 걸쳐서 많은 전파자들과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혼잡하게 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탐심을 위한 아침이나 변명을 피해야 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불순한 것에는 어떤 자리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좋은 아침을 하거나 탐심을 위해 어떠한 핑곗거리도 갖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원한다. 우리가 아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을 위해 어떠한 빌미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란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들에게서든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에게 실질적인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체에 의해 삼켜지고 파괴되었다.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을 의미한다. 직역하면 ‘무거울 수도 있었지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즉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참조 살전 2:9, 고전 9:4-12). 그리스도인의 일에서 권위나 존엄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일을 손상시킨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존엄을 버리셨고(요 13:4-5), 사도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고전 9:12).

겉으로 보기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은 탐심처럼 악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 교묘하다. 천사장의 타락은 영광을 추구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는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 비록 그는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인도하는 천사였지만 여전히 영광을 추구했다.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다. 신약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탄의 추종자이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놓은 덫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일꾼들이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덫을 피하기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덫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우리의 유용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영광을 추구한다면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유용성은 끝난 것이다. 자기를 위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항상 사람의 유용성을 죽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특히 청년들은 주님의 일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아야 한다.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리킨다. 그들은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사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노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다만 자신이 믿는 이들을 섬기는 형제들임을 기억했다. 그들은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지 않았다.

믿는 이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이들도 인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사도들을 고관들처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 고관이 없다. 고관들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노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칭호를 갖지 못할 때 아무 책임도 맡지 않으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봉사 그룹에서 지위가 주어지자마자 그들은 존중을 받으려고 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결코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남편이 장로인 자매는 장로의 아내라는 이유로 존중을 받는 위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장로의 아내는 ‘영부인’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교회를 섬기는 작은 자매이다. 더 나아가 그녀의 남편은 고관이 아니다. 그는 노예이다. 장로인 그는 노예처럼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이라는 바울의 말은 심지어 초기에도 존중받는 지위를 취하려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였다. 또한 지금처럼 어떤 지위나 존중받는 위치를 취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사도로서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존중을 받는 위치에 서거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이다.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곧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죽일 것이다.

믿는 이들을 소중히 보살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는 것같이 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어머니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트로포스’인데, ‘유모’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가리킨다(참고 갈 4:19). 보살피는 것은 보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보양하는 것뿐 아니라 부드럽게 돌보는 것도 포함한다.

바울은 형제였지만 자신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여겼다. 물론 그는 지위나 존엄이나 권위를 취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생각과 존귀나 지위에 대한 생각은 매우 다른 것이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에게 무슨 지위가 있겠는가? 그녀에게 무슨 계급이나 존귀나 권위가 있겠는가? 그녀의 존귀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데 있으며, 그들을 부드럽게 돌보는 데 있다.

‘보살피다’라는 말은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이다. 바울은 자신을 다만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결코 믿는 이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또한 그저 그들을 위해 봉사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소중히 보살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부드러움으로 가득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함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을 이처럼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말은 ‘넘치는 애정으로 좋아하다’, ‘넘치는 애정으로 그리워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신이 양육하고 보살피는 아이를 넘치는 애정으로 관심하는 것과 같다. 사도들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였다. 3절부터 6절까지와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는 것과 7절부터 9절까지와 11절에 묘사된 것처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줄 정도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안에서 전달된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고자 한 것에 관한 바울의 말은 고린도후

서 12장에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소비하는 것에 관한 그의 말과 비교될 수 있다. 바울은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자기 자신, 즉 그의 존재를 소비하기 원했다. 사도들은 그들의 존재를 믿는 이들 안으로 넣어 주기를 원했다. 이것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자신을 주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사도들의 처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은 “형제님들,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짐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했다.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나무랄 데 없이 처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증인이며, 하나님도 증인이십니다.” ‘거룩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무랄 데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모두를 향하여 사도들이 어떻게 처신하였는가를 가리킨다. 이렇게 처신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10절은 사도들이 자기 절제를 훈련하는 이들이었음을 제시한다.

자녀들을 권면하는 아버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사도는 그들의 어떠한과 행위에 대해 강하게 강조했다(살전 1:5). 왜냐하면 그들의 어떠한이 새롭게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으로 이끄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자기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아버지처럼 여겼다. 믿는 이들을 자녀처럼 소중히 보살핀 사도들은 그들 자신을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여겼으며, 믿는 이들에게 권면할 때는 그들 자신을 아버지로 여겼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며 그것은 그분의 선택을 뒤따른다(살전 1:4). 믿는 이들은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1:9) 사탄의 왕국 안에 있었다(마 12:26).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해 부름받고 믿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신성한 다스림 아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왕국과 함께한다.

1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고한다. 만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겠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바울은 믿는 이들이 따라야 할 본을 세웠다.

12절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인도되는 것에 관련됨을 가리킨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상과 대조되는 여기에서의 사상은 매우 깊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소홀히 여기는 문제를 본다. 많은 믿는 이들은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함, 즉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행함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린 믿는 이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의 일부로 포함된다.

좋은 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새로운 믿는 이들을 위한 본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준다. 합당한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기,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순수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 구절들에 기록된 많은 내용이 돈이나 탐욕이나 탐심에 관계된다. 만일 우리가 돈에 대해 순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신실하거나 정직하거나 충성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그것을 팔러 다니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동기는 우리로 아첨하게 하며 탐심을 위한 빌미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심각한 문제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어린 성도들에게 합당한 본이 되려 한다면 우리의 탐욕은 끝나야 하며 돈 문제는 우리의 발밑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어떤 탈을 쓰거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 다른 믿는 이들은 자신이 따를 수 있는 좋은 본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같이 방향 감각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합당한 본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고, 어머니처럼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해야 하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아버지처럼 그들을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적했듯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는 생활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된다. 이 같은 행함은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셨다. *(데살로니가전서 라이프 스타디, 12장, 112-122쪽)*